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인내적 중재요인 - 남·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 *

하 은 혜¹⁾

조 유 진²⁾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는 아동 후기의 발달적 특징인 또래동조성과 집단괴롭힘 가해행동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중재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집단괴롭힘 문제의 개입과 예방을 위한 효율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1. 또래동조성은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을 예측하는 주요변인인가 2.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인내적 요인(자존감, 내적통제, 공감능력, 정서조절능력, 자기통제력)의 중재효과는 어떠한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고,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5개 초등학교의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에 의한 집단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여 학생 두 집단 모두에서 또래동조성은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즉, 또래동조성이 높을수록 가해행동을 할 수 있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재효과에 관련된 결과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인내적 요인의 중재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반면, 여학생의 경우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인내적 요인의 중재효과는 정서조절능력을 제외하고 자존감, 내적통제, 공감능력, 자기통제력 모두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낮춤으로써 중재효과가 유의하였다. 따라서 또래동조성에 의한 여학생의 집단괴롭힘 문제를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존감, 내적통제, 공감능력, 자기통제력을 강화하는 교육과 예방적 접근이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집단괴롭힘, 집단따돌림, 가해행동, 또래동조성, 중재요인, 보호요인

* 본 연구는 2006년도 숙명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음.

1) 교신저자 : 숙명여자대학교 조교수 (E-mail : graceha@sookmyung.ac.kr)

2) 숙명여대 아동연구소 책임연구원 및 숙명여대 강사

I. 서론

아동·청소년기는 그 발달단계상 많은 시간을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맺는 적절한 기술을 습득하며 이를 기초로 대인 자신감을 형성하는 시기이다. 즉, 또래 집단에서의 정상적이고 친밀한 관계의 형성은 개인의 총체적 인격 발달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Hartup, 1983). 그러나 최근 학교에서 일어나는 공공연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집단괴롭힘에 관한 것으로 이는 관련 학생의 현재 적응 뿐 아니라 이후의 정서적, 사회적 문제와 함께 임상적 외상으로 까지 지속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00; Nansel et al., 2001; O'Connell, Pepler & Craig, 1999)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집단괴롭힘의 피해학생은 빈번하게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견해, 비난, 낮은 자아존중감의 문제(김정원, 김광웅, 2003; 이상주, 2003; 이춘재, 박금주, 2000a, 2000b; Bernstein & Watson, 1997)와 더불어 사회적 고립과 소외(홍석주, 2001; Hodges & Perry, 1999; Hugh-Jones & Smith, 1999)를 경험하게 되며 심각하게는 구타, 폭행으로 우울이나 다른 내면적 문제(문혜신, 2001; 서은영, 2001; 이상주, 2003; 최은숙, 2000; Pellegrini, 1998), 심지어 자살(보건복지부, 2000;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1996)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해학생 또한 비행이나 학교폭력(황성숙, 1998; Rigby & Cox, 1996; Slee, 1995), 그 밖의 외현화된 행동문제(Nansel et al., 2001; Olweus, 1997)나 장기적으로는 성인기 이후 법률에 저촉되는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Batsche

& Knoff, 1994; Lochman, 1992; Olweus, 1994).

한편 최근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괴롭힘의 형태는 학생들의 일상생활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이은정, 2003), 특정 학생들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일상화된 폭력양상을 지닌다(이혜영, 김영철, 1999).

이상과 같이 집단괴롭힘은 관련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또한 그 형태가 가해행위를 뚜렷이 구분하기 어렵고 학교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점에서 집단괴롭힘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에서 벗어나 학교나 사회가 강력히 개입하고 중재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면 학교현장에서 집단괴롭힘 문제가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확산되어 있는 데에는 어떠한 부정적 기여조건이 작용하는가?

최근의 연구들(김용태 외, 1997; 김태웅, 2003; 박정은, 2002; 유귀순, 2001; 이희경, 2003)에 의하면 아동 후기의 발달적 특징인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현상을 부추기고 유지시키는데 부정적 기여를 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유귀순(2001)은 집단괴롭힘의 지속과 장기화 현상에 가해자 집단의 또래동조성이 부정적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고하였고 또한 김용태 외(1997)의 연구에서는 괴롭힘 가해자들이 가해행동을 하는 이유로서 만약 괴롭힘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신도 똑같이 괴롭힘 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에 동참한다고 하였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집단괴롭힘 가해경향과 또래동조성이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는 박정은(2002)이나 가해자의 인상평가, 호감도, 도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으로 또래동조성이 보고된 것(이희경, 2003)과도 유사한 맥락이다. 한편 한상철(2001)은 청소년 폭력과 관련하여 폭력을 주도한 사람보다 또래의 동조압력에 의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더 잔인한 방법의 폭력을 사용한다고 언급하여 공격과 폭력의 행사에 또래동조성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이상 기술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김용태 외, 1997; 김태웅, 2003; 박정은, 2002; 유귀순, 2001; 이희경, 2003)은 또래동조성이 높을수록 집단괴롭힘의 가해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또래동조성이 높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가해학생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즉, 동일한 정도의 또래동조성을 지닌 개인일지라도 어떤 학생은 쉽게 가해자로 전환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아동후기 발달적 특징인 또래동조성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부정적 경로에 대한 개별적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 즉 중재요인을 밝혀내는 작업은 집단괴롭힘의 확산과 이차적 발생경로를 차단시켜 줄 수 있는 개입전략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되며 본 연구는 이러한 중재요인을 개인내적 차원, 즉 자존감, 통제소재, 공감능력, 정서조절능력, 자기통제력을 중심으로 그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중재변인에 대한 설정 근거는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이 아동 및 청소년기 나타나는 대표적 문제행동의 하나임에

근거(한국청소년상담원, 2003)하여 아동 및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이나 비행을 중재한다고 보고된 변인들을 개인내적 차원에서 추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들은 보다 직접적인 가해행동을 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관계에서 소외를 시키는 등의 간접적 괴롭힘 행동을 많이 한다는 연구들(강진령, 유형근, 2000; 김혜원, 이해경, 2000; 이문자, 2003; 이상균, 1999a, 1999; 이은정, 2003; 이춘재, 2000b)에 근거해 남·여 초등학생 각 집단을 구분하여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즉, 성별에 따라 집단괴롭힘의 발생양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성 변인을 기본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아동 후기의 발달적 특징인 또래동조성과 집단괴롭힘 가해행동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중재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집단괴롭힘 문제의 개입과 예방을 위한 효율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또래동조성은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의 예측변인인가?

연구문제 2.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인내적 요인의 중재효과는 어떠한가?

2-1.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존감의 중재효과는 어떠한가?

2-2.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적통제의 중재효과는 어떠한가?

2-3.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감능력의 중재효과는 어떠한가?

2-4.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조절능력의 중재효과는 어떠한가?

2-5.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중재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또래동조성이 아동후기 그 양상이 뚜렷해지는 발달적 특성으로 집단괴롭힘 가해행동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의 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수락한 학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남·여 학생 성비를 고려해 조사대상의 수를 결정하였다. 이는 집단괴롭힘의 정확한 발생비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시 우선적으로 학년과 성별차이를 고려한 표집이 필요하다는 권준모(1999)의 제안에 근거한 것이다. 자료수집 방식은 질문지법에 의한 집단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한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무응답이 많은 경우에 분석에서 제외시켜 최종 성별, 학년별 분포는 남학생 241부, 여학생 237부와 5학년 234부, 6학년 244부의 질문지를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측정도구

집단괴롭힘 가해행동

본 연구에서의 준거변인인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이춘재, 곽금주(2000b)가 사용한 척도를 수정·보완한 이은정(200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에 대한 응답방식은 지난 6개월 동안(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집단괴롭힘의 가해 경험(예; 고의적으로 나쁜 소문을 퍼뜨려 다른 학생들이 그 학생을 싫어하도록 만드는 것을 하였다)에 대해 ‘전혀 없다’, ‘1-2번’, ‘한달에 1번 이하’, ‘한달에 2-3번’, ‘일주일에 1번 이상’의 5점 Likert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집단괴롭힘 가해경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집단괴롭힘 가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75로 나타났다.

또래동조성

또래동조성을 측정하기 위해 오경희(1989)의 또래동조성 척도를 이돈집(2004)이 현재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중립적 행동에 대한 또래동조와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또래동조의 2개 하위영역,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예비조사의 신뢰도 분석을 기초로 3개 문항을 제외한 총 1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응답방식은 ‘예’, ‘아니오’의 2점 Likert 방식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척도의 해석은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동조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63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존중하며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형성하고 유지하는 평가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로 표현되며 자신에 대해 유능하고 성공적이며 가치롭다고 보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Coopersmith, 1967)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Rosenberg(1965)의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내가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등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조사에서는 예비조사 시 신뢰도가 낮게 나온 1개 문항을 제외한 총 9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방식은 3점 Likert 방식으로 부정적 진술문항에 대해서는 역채점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76으로 나타났다.

내적통제

통제소재(Locus of Control)란 개인이 자신의 성공과 실패의 귀인을 어디에 돌리느냐 하는 것으로 Rotter(1966)에 의하면 어떤 행동이 주어진 상황에서 발생할 잠재력은 그 상황에서 강화가 있으리라는 개인의 기대와 강화가 가지는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내적통제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자신의 행동이나 영속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고, 외적통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강화가 자신의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운, 우연, 운명이나 권력있는 타인에 의해 지배되거나 그들 둘러싼 힘이 너무 크고 복잡해서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통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민하영(1999)이 개발한 내외통제소재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누구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등 내적통제 문항 10개와 ‘무슨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없다’등의 외적통제 문항 10개의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예비조사 시 신뢰도가 낮게 나온 4개 문항을 제외한 총 1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응답방식은 4점 Likert 방식으로 내적통제의 문항은 그대로 채점하되 외적통제의 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통제 성향이 높고 외적통제 성향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74로 나타났다.

공감능력

공감이란 타인의 감정이나 심리상태 그리고 내적인 경험을 마치 나의 것처럼 이해하고, 매 순간 함께 느끼며 의사소통하는 과정을 포함한 복합적인 행동이다. 본 연구에서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Davis(1980)의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박성희(1994)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관점 취하기와 공감적 관심 영역의 문항 중 예비조사 신뢰도 분석을 기초로

총 12개 문항(예; 누군가가 이용당하는 것을 보면, 나는 그에 대해 일종의 보호심을 느낀다)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응답방식은 5점 Likert 방식으로 부정적 문항에 대해서는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의 관점이나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척도의 전체 신뢰도 Cronbach α 는 .73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능력

Thompson(1994)에 의하면 정서조절이란 내적 감정상태 및 정서와 관련된 생리학적 과정의 발생, 강도, 지속시간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즉, 정서조절은 하나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과정이며 개인이 목표를 위해 정서적인 반응을 모니터, 평가, 수정하는 과정으로 정서조절에는 정서적·인지적·행동적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정서조절능력 척도로서 문용린(1997)이 제작한 청소년용 정서지능검사를 바탕으로 하지원(2005)이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의 정서조절과 타인의 정서조절에 관한 2개 하위영역의 총 15개 문항(예; 나는 우울할 때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려고 노력한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예비조사의 신뢰도 분석을 바탕으로 2개 문항을 제외한 총 1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응답방식은 4점 Likert 방식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척도의 해석은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전체 신뢰도 Cronbach α 는 .86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은 자신의 인지나 정서, 행동을

스스로 중재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자기통제력에 대해 자신이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사회규범을 이탈하는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의 차등적 능력으로 정의하였고 Kagan(1984)은 자기통제력을 분노로 인해 유발된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의지로서 정의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자기통제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선희와 김정연(2001)이 Children's Self-Control scale(Humphrey, 1982)을 바탕으로 5개 문항을 추출하여 만든 자기통제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결과를 먼저 생각한다’ 등의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에 대한 해석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76으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예비조사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문항에 대한 이해 정도와 소요시간, 문항의 적절성, 신뢰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최종 질문지를 확정하였다.

본조사

선정된 학교에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직접 방문하여 해당 학급별로 집단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실시 전 연구의 취지나 응답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학생들의 협조를 부탁한 후 질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배포된 질문지는 조사가 끝난 후 모두 수거해 당일 회수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AS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분석 하였다.

첫째,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의 주요 예측변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또래동조성을 예측변인으로, 가해행동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남·여 집단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인내적 요인의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적 중다회귀분석(Multiple Moderating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조절적 중다회귀분석은 주로 중재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에 많이 사용되는 데(Aiken & West, 1991; Zedeck, 1971), 이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밝혀진 인자들에 새로운 조건이 추가되었을 경우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분석방법이다.

III. 결과 및 해석

1.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또래동조성을 예측변인으로,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남·여 집단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로 하여 남·여 집단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3-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남·여 학생 두 집단 모두에서 또래동조성은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에 대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동조성이 높을수록 가해행동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으나 그 설명력은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에게서 또래동조성의 설명력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2.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인내적 요인의 중재효과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인내적 요인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조절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즉,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1단계에서는 또래동조성과 개인내적 요인(자존감, 통제소재, 공감능력, 정서조절능력, 자기통제력) 각각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다음 2단계에서는 1단계에 투입된 변인들과 함께 또래동조성과 개인내적 요인(자존감, 통제소재, 공감능력, 정서조절능력, 자기통제력) 각각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그 통계적 유의성을

표 3-1.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집단	준거변인	예측변인	<i>b</i>	<i>t</i>	<i>r</i> ²	<i>F</i>
남(<i>n</i> =241)	집단괴롭힘 가해행동	또래동조성	.44	2.53*	.03	6.42*
여(<i>n</i> =237)	집단괴롭힘 가해행동	또래동조성	.42	3.64***	.05	13.24***

p*<.05, *p*<.01, ****p*<.001

표 3-2. 여학생 집단의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인내적 변인의 중재효과
($n=237$)

변인	1단계 β	2단계 β
또래동조성	.23***	.22***
자아존중감	-.05	-.04
또래동조성 × 자아존중감		-.16**
R^2	.06	.08
ΔR^2		.02
F	6.85**	6.93***
또래동조성	.22***	.19**
내적통제	-.09	-.11
또래동조성 × 내적통제		-.19**
R^2	.06	.10
ΔR^2		.04
F	7.55***	8.21***
또래동조성	.22***	.19**
공감능력	-.07	-.11
또래동조성 × 공감능력		-.23***
R^2	.06	.11
ΔR^2		.05
F	7.22***	9.34***
또래동조성	.23***	.22***
정서조절능력	.00	-.02
또래동조성 × 정서조절능력		-.12
R^2	.05	.07
ΔR^2		.02
F	6.59**	5.64**
또래동조성	.21**	.17**
자기통제력	-.13*	-.16**
또래동조성 × 자기통제력		-.22***
R^2	.07	.12
ΔR^2		.05
F	8.72***	10.26***

* $p < .05$, ** $p < .01$, *** $p < .001$

살펴보는 위계적 회귀분석의 방법을 실시하였다. 이때 상호작용항의 추가로 인해 나타나는 예측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해결을 위해 또래동조성과 개인내적 요인은 centering 방식(박광배, 2004)에 의해 투입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분석한 결과 남학생 집단에서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인내적 요인의 중재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남학생 집단에서는 자존감, 통제소재, 공감능력, 정서조절능력, 자기통제력에 관계없이 또래동조성이 높을수록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여학생 집단에서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인내적 요인의 중재효과는 표 3-2에 제시한 바와 같은데 즉, 정서조절능력을 제외하고 자존감, 내적통제, 공감능력, 자기통제력 모두가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낮춤으로써 보호요인으로써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재효과가 나타난 자존감, 내적통제, 공감능력, 자기통제력의 구체적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각 변인의 평균을 중심으로 상·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여학생 집단에서의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표준화 β 계수를 산출하였다. 중재변인의 집단 구분을 위해 평균을 기준으로 두 집단 구분한 것은 각 변인의 정규성 분포가정에 대한 확인 결과 모든 중재변인들이 정규분포 가정에 부합(w: normal, $p>.05$)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학생 집단에서의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

표 3-3. 여학생 집단의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중재변인 집단 수준별 표준화 β 계수 ($n=237$)

중재변인 집단	또래동조성 → 집단괴롭힘 가해행동(표준화 β 계수)
자존감	상 .12
	하 .30***
내적통제	상 .08
	하 .29***
공감능력	상 .05
	하 .34***
자기 통제력	상 .04
	하 .35***

동에 미치는 영향의 중재변인 수준별 표준화 β 계수는 표 3-3에 제시하였다.

표 3-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학생 집단에서의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높은 자존감, 내적통제, 공감능력, 자기통제력에 의해 적절히 차단됨으로써 자존감, 내적통제, 공감능력, 자기통제력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후기의 발달적 특징인 또래동조성이 높을수록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음을 가정하고 이러한 경로를 중재시켜 줄 수 있는 개인내적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상기한 목적 하에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과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알아본 결과, 남·녀 초등학교 두 집단 모두에서 또래동조성은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의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동조성이 높을수록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을 할 수 있는 위험성 또한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집단괴롭힘 가해경향과 또래동조성이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는 박정은(2002)의 보고나 또한 가해자의 인상평가, 호감도, 도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또래동조성이 보고(이희경, 2003)된 것과도 유사한 맥락이다. 위의 결과들과 같이 또래동조성과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의 관련성은 Olweus(1978)가 주장한 사회적 전염(Social Contagion)에 의해 설명해 볼 수도 있다. 즉, 사회적 전염(Social Contagion)이란 다른 친구들이 행하는 공격적 행동의 목적이 이들로 하여금 유사한 반응경향을 불러올 수 있으며 나아가 허약한 상대방이 쉽게 굴복하는 모습은 동년배에게 공격적 행동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함으로써 가해행동에 참여토록 만든다는 것인데 이처럼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은 또래동조성에 의해 확산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2.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인내적 요인의 중재효과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인내적 변인들의 중재효과를 알아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여학생 집단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경우에는 자존감, 통제소재, 공감능력, 정서조절능력, 자기통제력에 관계없이 또래동조성이 높을수록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또래동조성과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의 부정적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있어 자존감, 통제소재, 공감능력, 정서조절능력, 자기통제력의 보호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여학생의 경우에는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인내적 요인의 중재효과로서 정서조절능력을 제외하고 자존감, 내적통제, 공감능력, 자기통제력의 중재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여학생의 경우에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의 부정적 기여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개인의 자존감, 내적통제, 공감능력, 자기통제력이 적절히 높은 경우 이러한 부정적 연결고리를 차단시킴으로써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는 몇몇 선행연구를 검토해 봄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타당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괴롭힘 가해행동에 대해 낮은 자아존중감이 괴롭힘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보고한 이문자(2003)의 연구, 내적통제와 관련해서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비행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내적통제를 보고한 Carr(1999)의 연구와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보호요인으로 내적통제가

강력한 변인임을 밝힌 이신옥(200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한편 자기통제력과 관련해서는 권지은(1998)이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변인들을 비행 유발요인과 억제요인으로 구분한 바 자기통제력이 비행을 억제하는 개인내적 보호요인이라고 보고한 바 있으며 정재임(2000) 또한 청소년의 폭력성과 관련해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폭력성을 유의하게 낮추며 또 다른 부정적 요인이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상기한 바의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학생 집단에서의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부정적 경로를 차단하는데 있어 자존감, 내적통제, 공감능력, 자기통제력의 보호적 효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또래동조성에 의한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의 발생현상이 개인내 심리적 특성에 따라 조절되는 정도가 남·녀 별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은 집단괴롭힘을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개입전략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구상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즉, 여학생의 경우에 아동후기 발달적 특징인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에 참여토록 하는 부정적 기여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자존감, 내적통제, 공감능력, 자기통제력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상당부분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을 감소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남학생의 경우,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는데 있어 자존감, 통제소재, 공감능력, 정서조절능력, 자기통제력과 같은 개인내적 요인들 외 다른 요소들에 보다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즉, 부모의 양육태도나 집단괴롭힘에 대한 교사의 단호한 태도 등 개인외적 환경적 요소들에 의한 중재효과를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의 예측변인임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부정적 경로를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개인내적 요인들의 중재효과를 확인한 결과, 여학생 집단에서 자존감, 통제소재, 공감능력, 자기통제력 강화하는 교육과 예방적 접근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표집은 집단괴롭힘 현상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발생비율이나 양상에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할 때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대한민국 전체에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전국에 걸친 대규모 표집을 통해 일반화 범위를 넓히고 중재변인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측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본 연구에서는 또래동조성, 집단괴롭힘 가해행동 및 개인내적 요인의 다양한 요인들을 가설적 중재요인으로 상정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자기보고식 설문특성상 많은 내용의 변수측정에 대한 부담 때문에 몇몇 변인들은 제한된 문항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측정의 타당도라는 측면에 있어 제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또래 동조성이 높을수록 가해행동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고 이에 대한 중재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는 또래동조성이 가해행동의 예측변인임에 틀림이 없었으나 실제적으로 그 설명력은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이 또래동조성 외 다른 많은 변인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괴롭힘 가해행동의 보다 강력한 예측변인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중재변인을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본 연구는 또래동조성과 집단괴롭힘 가해행동과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하는 중재변인을 탐색해 보고자 한 연구로서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시점에서 심층적 논의가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앞으로 추후연구를 통한 반복검증을 통해 중재변인의 효과를 재확인하고 또한 성별에 따라 중재변인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진령, 유형근 (2000). 집단괴롭힘. 서울: 학지사.
- 권준모 (1999). 국내외 집단따돌림 연구방법의 개관.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15, 45-56.
- 권지은 (1998). 청소년 비행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 김경연 (2001).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 아동학회지, 22(1), 19-34.
- 김용태, 박한샘 (1997). 청소년 친구 따돌림의 실태조사.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김정원, 김광웅 (2003).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10(1), 21-35.
- 김태웅 (2003). 집단 따돌림 가해와 피해의 관계 - 동조성과 정서적 반응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원, 이해경 (2000). 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관련경험에 대한 예언변인들의 탐색: 초·중·고등학생간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5(1), 183-210.
- 문용린 (1997). 정서지능(EQ) 진단검사. 서울: 대교 교육과학연구소.
- 문혜신 (2001). 또래의 괴롭힘이 청소년기 사회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하영 (1999).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내외통제소재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광배 (2004). 변량분석과 회귀분석. 서울: 학지사.
- 박성희 (1994). 공감·공감적 이해. 서울: 원미사.
- 박정은 (2002). 부모의 양육태도, 공격성 및 또래동조성과 집단 따돌림 가해경향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00). 중학생의 집단 따돌림 현상의 정신병리학적 연구.
- 서은영 (2001). 집단따돌림 하위유형과 심리적 특성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희 (1990). 아동의 또래동조성 발달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귀순 (2001). 공격성과 동조성이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돈집 (2004). 청소년의 문화성향과 또래동조성 및 집단따돌림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문자 (2003). 초등학생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의 생태체계적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균 (1999a).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균 (1999b). 중학생 또래따돌림(왕따)의 예측요인. 한국사회복지학, 37, 357-379.
- 이상주 (2003). 아동의 집단괴롭힘 행동특성과 심리적 특성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4(2), 121-146.
- 이신옥 (2003). 가정폭력경험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정 (2003). 학교체계요인이 집단따돌림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가해 경험집단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춘재, 곽금주 (2000a).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 지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65-80.
- 이춘재, 곽금주 (2000b).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 실태와 특성. 아산재단연구총서 제61집.
- 이혜영, 김영철 (1999). 학생의 집단 따돌림에 대한 대책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희경 (2003). 문화성향, 공감과 동조가 집단 따돌림현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7(4), 1-25.
- 정재임 (2000). 청소년의 폭력성 예측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6). 학교폭력, 고통 받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 한울림.
- 최은숙 (2000).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경향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 관한 일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지원 (2005).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 및 정서 조절능력이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3). 청소년 비행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종단연구III.
- 한상철 (2001). 청소년기 위험행동의 원인 및 보호적 요소와 발달적 모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9(4), 291-312.
- 홍석주 (2001). 초등학생의 집단 따돌림 지속여부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성숙 (1998). 학교내 집단괴롭힘에 대한 일 연

- 구 - 실태 및 피해·가해의 중첩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Batsche, G. M., & Knoff, H. M. (1994). Bullies and their victims: Understanding a pervasive problem in the schools. *School Psychology Review*, 23, 165-174.
- Bernstein, J. Y., & Watson, M. W. (1997). Children who are target of bullying: A victim patter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4), 483-498.
- Carr, A. (1999). *The handbook of child and adolescent clinical psychology: A contextual approach*. London: Routledge.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
- Gottfredson, M. 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rtup, W. (1983). Peer Relations. In E. M.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103-196. New York: Wiley.
- Hodges, E. V. E. & Perry, D. G. (1999). Personal and interpersonal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victimization by pe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677-685.
- Hugh-Jones, S., & Smith, P. K. (1999). Self-reports of short and long-term effects of bullying on children who stammer.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9, 141-158.
- Humphrey, L. L.(1982). Children's and teachers' perspectives on children's self-control: The development of two rating sca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 624-633.
- Kagan, J. (1984). Reflection-impulsivity The generality and dynamics of conceptual tempo.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1, 17-24.
- Lochman, J. E. (1992).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 with aggressive boys: Three year follow-up and prevention effec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 426-432.
- Nansel, T. R., Overpeck, M., Pilla, R. S., Ruan, W. J., Simons-Morton, B. & Scheidt, P. (2001). Bullying behaviors among us youth: prevalence and association with psychosocial adjustment. *Jama*, 285, 2094-2100.
- O'Connell, P., Pepler, D., & Craig, W. (1999). Peer involvement in bullying: insights and challenges for interven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3, 398-410.
- Olweus, D. (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 C: Hemisphere Press.
- Olweus, D. (1994). *Bullying at school*:

- Long-term outcomes for the victims and an effective school-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L. R. Huesmann(Ed.), *Aggressive behavior: Current perspectives* (pp.97-130). New-York: Wiley.
- Olweus, D. (1997). Bully/victim problems in school: Facts and intervention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12(4), 495-510.
- Pellegrini, A. D. (1998). Bullies and victims in school: A review and call for research.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9, 165-176.
- Rigby, K. & Cox, I. (1996). The contribution of bullying at school and low self-esteem to acts of delinquency among australian teenage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21(4), 609-612.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lee, P. T. (1995). Peer victimiz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depression among australian primary school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18(1), 57-62.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1), 1028.
- Zedeck, S. (1971). Problems with the use of “moderator” variables. *Psychological Bulletin*, 6, 295-310.
- 1 차원고접수 : 2007. 10. 01.
수정 원고접수 : 2007. 11. 09.
최종 게재결정 : 2007. 11. 14.

Intrapersonal Moderating Variables on the Influence of Peer Conformity to the Bullying Behavior

Eun-Hye Ha

You-Jin Cho

Dept. of Child Welfare and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dangerous routes by which peer conformity causes the bullying behavior and to clarify moderating intrapersonal variables which control the routes. The subjects were 478 5th and 6th grade school children in Seoul and Kyŏnggi, Korea.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eer conformity was positively related to bullying behavior in male and female students. Second, through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conformity and bullying behavior, self esteem, internal locus of control, empathy, self control are protective factors which lower bullying behaviors in girls.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e connection between peer conformity and bullying behavior as well as the effect of intrapersonal moderating variables on the influence of peer conformity on bullying behavior in girls.

Key words : bullying, peer conformity, intrapersonal moderating variables, protective factors